

# 한국문화 체험 '군산'으로 오세요

군산시, TPO K-Clip 2018  
주요 관광지 투어 추진

군산시는 지난 7일 전주에서 시작된 TPO K-Clip 2018의 투어 도시로 참가해 주요 관광지를 투어 추진한다고 밝혔다.

TPO K-Clip 프로그램은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여행과 언어, 문화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했으며 올해에는 미국,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9개국 42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의 호스트 도시인 전주에서 전통문화, 음식 체험을 시작한 행사 참가자들은 11일 군산으로 이동해 주요 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과 철길마을을 찾아 근대문화유산을 탐방했다.

또한 군산 밤의 아름다운 전경과 역사문화자원이 접목된 야간형 문화향유 프로그램인 2018 군산야행에도 참가하여 야경(夜景), 야로(夜路) 등의 8개 테마로 꾸며진 7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제 체험하는 등 잊지 못할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군산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지역 내 투어를 위해 외국어통역이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고, 지역 특화 음식 체험 시간도 마련해 참여자들에게 군산의 맛과 멋, 고풍스러운 야경까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곳은 전주시를 비롯해 군산, 익산, 임실, 남원, 안동, 강화, 고양 등 8개 회원도시로, K-Clip 참가자들은 군산시의 일정이 끝나면 다음 회원도시인 임실로 이동해 이후 프로그램을 소화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16일까지 이어지는 회원도시 투어가 끝나면 행사 기간 내 체험 영상을 제작·발표하고, 개인 SNS 홍보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도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섭 관광진흥과장은 "군산시의 자랑스러운 관광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어 기쁘고, 행사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다시 한번 군산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2011년에 TPO 회원도시로 가입한 군산시는 해외공동마케팅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인재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 전주대, 제3회 독립운동 국제영화제 개최

제73주년 광복절 기념 지역주민과 소통·역사 인식 시간 마련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에서 운영하는 K-History 2H 핵심인력양성사업단(단장 이상균 교수)이 오는 14일 전주신일교회 ECM문화센터 그레이스홀에서 '제3회 독립운동 국제영화제'를 진행한다.

국제영화제는 이번으로 3회째 맞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지역민의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전주시민과 전주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며 독립·광복과 관련된 국내외 2개 작품이 상영된다. 첫 번째 상영작은 '동주'로 일제강점기에 시인 윤동주의 삶을 그린 영화이다. 이어서 폴란드 작 '카틴(Katyn)'이 상영된다. 영화 '카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이 2만 2,000여 명의 폴란드인을 총살하여 매장한 '카틴숲 사건'을 그린 작품으로 폴란드 독립 100주년째 상영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영화제는 K-History 2H 핵심인력양성사업단에서 주관하고 항일역사재단(주최),

한국고전문화연구원(후원), 광복회(후원)가 참여하여 전주를 비롯한 서울, 천안, 대구, 화성 총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전주에서 진행되는 독립운동 국제영화제는 총 6시간 동안 진행되며, 150명 선착순 입장 가능하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마련된 다과를 즐기며 역사와 영화 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전주대 이상균 교수는 "광복절을 기념하여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쉽게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었다."라며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곳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관람하며 역사도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K-History 2H 핵심인력양성사업단은 2014년 교육부(CX-1사업)에 선정된 이후, 한국 최고의 역사학·창조적 문화융합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트랙교육과정,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산학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세계 경매시장서 거래되는 우리 문화재 작년에만 2934건

지난 4월 8일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23만 7500달러(한화 약 3억원)에 낙찰된 덕은공주(1822~1844년)의 인장이 지난 5월 고국으로 돌아왔다. 조선 제23대 왕인 순조(재위 1800~1834년)와 순원왕후의 셋째 공주이자 조선의 마지막 공주의 도장이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1만5000달러에 시작된 덕은공주 인장은 치열한 경합 끝에 경매 예상가인 2만~3만 달러 보다 무려 10배 가량 많은 금액에 낙찰됐다. 당시 한인 여성과 한인 남성의 경합으로 주목받았는데 최종 낙찰자였던 남성은 '국외소재문화재단' 소속으로 덕분에 우리 문화재 유물 한 점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 출품된 한국고미술품 중 최고 낙찰가는 2017년 5월 열린 경매에서 34만3500달러(한화 약 3억8500만원)에 낙찰된 숙선옹주 인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출품했고 낙찰받았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채 경매 기록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내 경매사의 '문화재 환수' 경매로 우리 문화재를 해외 경매에서 낙찰받아 되찾아오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서울옥션 홍콩경매에서 달항아리가 25억원에 낙찰, 국내로 들어왔다. 국내경매에 나온 달항아리로는 역대 최고가 기록으로 의미있는 문화재 환수의 사례다.

이처럼 해외 경매시장에 출품되는 우리 문화재가 연간 2000건 이상이며,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보통 문화재도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이 밝힌 '문화재 경매 및 매매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국외 경매시장에 출품된 우리 문화재는 21개국 292개소에서 2934건이었다. 이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에



덕은공주 인장

서 제출 받은 자료다.

국의 경매시장 문화재 출품은 2014년 2732건, 2015년 3432건, 2016년 2823건으로 매년 2000건을 상회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 경매 모니터링 사업은 국외시장은 1인의 담당직원과 2인의 보조 인력, 국내시장은 별도의 모니터링 인력 없이 개별 박물관에서 매일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지정문화재(문화재청이 국보 및 보물 등으로 지정한 문화재) 소유권 변동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총 28건의 보물 문화

재가 거래되었으며, 이 중 19건이 경매시장을 통해 거래됐다.

경매시장에 나온 19건의 문화재 중 국립박물관이 구입한 문화재는 총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현 의원은 "국외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문화재 중 가치 있는 문화재를 놓치지 않도록 정책 당국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보, 보물 등의 문화재도 국민들의 향유권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 베스트셀러 차트... 백세희 떡볶이, 유시민 역사 놀렀다

떡볶이가 역사를 꺾었다.

8월 1~7일 차트에서 백세희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6주 연속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린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를 누르고 1위에 등극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여성 독자 비율이 80.94%에 이른다. 20대 여성이 36.01%로 가장 많이 샀다. 이어 30대 여성(26.54%), 40대 여성(11.88%), 30대 남성(5.76%) 순이다.

일본 사회와 추리소설가 야쿠미루 가쿠의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은 2계단 올라 3위에 랭크됐다.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의 '열두 발자국'은 전 주보다 1계단 떨어진 4위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100만부 기념 특별 한정판)은 4계단 뛰어올라 8위에 꽃혔다.

공지영의 '해리'(1권)는 전주보다 30계단 올라 14위를 차지했다. 일본의 대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인터뷰한 '수리부엉이는 황혼에 날아오른다'는 출간과 함께 31위에 올랐다.

인터파크도서 8월 2~8일 차트에서는 지난 주 3위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 '역사의 역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3위는 백세희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4위는



정재승의 '열두 발자국'이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인생명언집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등 상위권 인기도서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